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공주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ocial Network(SNS) Addiction Tendency on Personal Relations

Gong-Ju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imha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중독 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경남 G시의 중·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t -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점수는 성별 ($t=-2.25, p=.011$), SNS사용기간($F=3.15, p=.015$), 평균사용시간($F=15.87, p<.001$), SNS매체($F=3.12, p=.027$), SNS매체 사용시간($F=6.5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영향요인은 SNS 중독경향성($\beta=-.64, p<.001$)으로 3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 중독경향성, 대인관계, SNS 매체,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narrative research study to find out the effect of adolescents'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250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G city, Gyeongnam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 using SPSS 23.0 program. SNS addiction tendency scor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ere gender ($t = -2.25, p = .011$), duration of SNS use ($F = 3.15, p = .015$), average usage time ($F = 15.87, p = .001$), SNS media ($F = 3.12, p = .027$), and SNS media usage time ($F = 6.58, p = .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addiction tendency of S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Addiction tendency of SNS($\beta=-.64,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lained 37% of the total variability.

Key Words : Adolescent, Addiction tendency, Personal relationship, SNS media, Convergen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Social Network Services(SNS)란 인터넷을 통한 사회 연결망 기능을 제공하고 사이버 매체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여 자신들을 표현하고 타인들과 교류하면서 인맥을 관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SNS 중독은 특정 대상에 심하게 몰두하여 대상들로부터 편안함과 만족감을 확인하게 되는 의존성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존성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Corresponding Author : Gong-Ju Park(conti52@hanmail.net)

내성, 그리고 그 대상들과 접촉하지 않을시 부정적인 심리적, 신체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금단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어디서나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기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의 확산에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3].

2016년 청소년 사이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의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7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 SNS에 접속한다고 나타났다[4]. SNS의 주 이용층이 청소년인데 이는 다른 대상에 비해 새로운 기술은 물론 정보화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SNS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적인 인지가 형성되어 SNS이용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SNS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SNS에 대한 과도한 소통과 시간투자와 집착으로 인한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NS에 수시로 업로드 되는 새로운 글, 또래 친구들의 댓글과 반응 등 소식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워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6].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SNS를 타인들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인관계의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선생님이나 가족보다 또래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름의 규범체계, 의식가치 등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특별한 하위문화를 만드는 시기이다[7,8].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SNS는 또래집단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9].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향하는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발달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서로간의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며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10].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과 접촉하거나 유명인과 상호작용할 목적보다는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즐

거움이 많아서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SNS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12].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의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다른 이유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직접적인 대면관계보다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고 실제적으로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의 가치결정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족 또는 친구들과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갖는 소외되고 외로운 학생일수록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인 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감으로써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다[13,14].

이처럼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결과는 불안, 우울, 소외 등의 심리적 기저와 함께 비행, 중독, 약물남용 등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52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1%가 자신들이 SNS를 과다 사용했고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여 SNS를 또래 집단과 교류하기 위해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SNS 중독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15].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SNS 사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 통제력이 미흡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불명확하게 정보출처로부터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고 자극적일수록 루머나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SNS를 통해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되면서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6].

이에 청소년들의 SNS 중독경향성에 심리적 기저로서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의 지속적인 사용이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했다[17]. SNS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단계에 있어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8].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19].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의 사용이 대인관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 비

록 사이버 매체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SNS의 사용이 늘어나고 사이버 매체와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SNS의 부정적인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SNS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듯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SNS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1.2.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이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1.2.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1.2.4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한 인문계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06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표본은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 .50, 검정력 .90%로 산출한 결과 172명 이상이 되면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44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4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학부장 교사를 만나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받았으며, 자료수집하기 전에 연구진행에 관한 협조를 주는 담당학부장 교사에게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승인을 받고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직접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결정은 스스로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빈

교실에서 본 연구자와 함께 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학부모 및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의 비밀보장 및 자료 폐기 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였다. 학부모님이 동의한 학생일지라도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 도중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는 작은 사례와 함께 설문지와 서면 동의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10~20분 정도였다.

2.3 연구 도구

2.3.1 SNS 중독경향성

Kim[11]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척도를 Park[12]이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형식은 몰입 및 내성 7문항,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 6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5문항씩 총 24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경향성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로 나타났다.

2.3.2 대인관계 척도

Kim et al.[20]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형식은 하위영역별로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방법

조사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98명(47.6%), 여학생이 108명(52.4%)이었고, 학년은 중학생 68명(33.0%), 고등학생 138명(67.0%)이었다. SNS 사용기간은 2년 이상이 138명(67%)으로 가장 많았고, 1년~2년이 30명(14.6%), 3~6개월, 6개월~1년이 14명(6.8%)로 같았으며 3개월 미만인 10명(4.8%)이었다. SNS 평균 사용시간은 1시간~2시간이 66명(32%)으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으로 응답한 인원이 50명(24.2%), 30분 미만이 37명(18%), 3시간 이상이 30명(14.6%)이었다. SNS 매체는 페이스북이 149명(72.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높은 이용율을 나타낸 SNS는 인스타그램이 22명(10.7%), 카카오 스토리 19명(9.2%), 트위터 16명(7.8%)이었다. SNS 매체의 사용 기간은 2년 이상이 99명(48.1%), 1년~2년이 54명(26.2%), 6개월~1년이 28명(13.6%), 3개월 미만이 13명(6.3%), 3개월~6개월이 12명(5.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Categories	n(%)
Gender	Male	98(47.6)
	Female	108(52.4)
Age	Middle School	68(33.0)
	High School	138(67.0)
Period fo use SNS	≤3 months	10(4.8)
	3~6months	14(6.8)
	6months~1years	14(6.8)
	1years~2years	30(14.6)
	≥2years	138(67.0)
Average usage time a day	≤30min	37(18.0)
	30min~1hours	50(24.2)
	1hours~2hours	66(32.0)
	2hours~3hours	23(11.2)
	≥3hours	30(14.6)
SNS media	facebook	149(72.3)
	Instagram	22(10.7)
	twitter	16(7.8)
	kakaostory	19(9.2)
SNS media usage period	≤3 months	13(6.3)
	3~6months	12(5.8)
	6months~1years	28(13.6)
	1years~2years	54(26.2)
	≥2years	99(48.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독경향성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t=-2.25, p=.011$). SNS 사용기간에 따라서는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NS 사용기간이 1년~2년, 2년 이상인 청소년이 3개월 미만인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F=3.15, p=.015$). SNS 평균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NS 평균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이 2시간~3시간, 1시간~2시간, 30분~1시간, 30분 미만인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F=15.87, p<.000$). SNS 매체에 따라서는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트위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를 사용하는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F=3.12, p=.027$). SNS 매체 사용기간에 따라서는 중독경향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용기간이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인 청소년이 3개월 미만, 3~6개월인 청소년 보다 중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F=6.58, p<.000$).

3.3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에 대한 정도

Table 3과 같이 각 변수의 평균평점은 SNS 중독경향성은 1.93점이었고, 대인관계는 2.23점 이었다.

Table 2. Addiction tendency of SNS, person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Categories	Addiction tendency of SNS		Personal relationship	
		M±SD	F/t (p)	M±SD	F/t (p)
Gender	Male	44.26±12.29	-2.25(.011)*	92.86±26.13	-0.25(.800)
	Female	48.50±11.48		93.78±24.06	
Age	Middle School	44.64±12.84	-1.54(.124)	96.77±25.46	1.39(.166)
	High School	47.39±11.55		91.63±24.69	
Period fo use SNS	≤3 months	36.70±14.15 ^a	3.15(.015)* b>a	97.40±20.19	1.04(.384)
	3~6months	41.42±14.31 ^{ab}		103.71±22.42	
	6months~1years	44.35±16.84 ^{ab}		86.92±29.14	
	1years~2years	45.70±12.07 ^b		95.70±26.53	
	≥2years	48.09±10.65 ^b		92.12±24.75	
Average usage time a day	≤30min	37.86±11.51 ^a	15.87(.000)* c>b>a	97.86±21.41	.65(.625)
	30min~1hours	42.02±11.83 ^a		91.40±27.04	
	1hours~2hours	49.78±10.20 ^b		90.77±25.82	
	2hours~3hours	48.52±8.71 ^b		93.73±21.14	
	≥3hours	55.73±9.25 ^c		96.30±26.95	
SNS media	Facebook	46.20±11.71 ^a	3.12(.027)* b>a	92.35±24.99	0.35(.789)
	Instagram	47.40±12.97 ^{ab}		93.86±23.23	
	Twitter	53.68±11.35 ^b		97.06±27.26	
	Kakaostory	47.57±11.99 ^a		97.26±26.45	
SNS media usage period	≤3 months	36.92±12.08 ^a	6.58(.000)* b>a	105.53±16.24	0.89(.467)
	3~6months	35.50±11.33 ^a		93.75±21.18	
	6months~1years	45.14±14.88 ^b		91.21±28.23	
	1years~2years	46.90±11.31 ^b		91.48±26.65	
	≥2years	49.22±10.26 ^b		93.29±24.47	

Table 3. Addiction tendency of SNS, 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	Min	Max	M±SD	Item M±SD
Addiction tendency of SNS	24	79	46.48±12.03	1.93±0.50
Personal relationship	40	152	93.33±25.01	2.23±0.62

3.4 종속변수와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종속변수와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연령은 SNS 사용기간($r=.176, p=.011$), 평균사용시간($r=.166, p=.017$), SNS 매체 사용기간($r=.205, p=.003$)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SNS 사용기간은 평균사용시간($r=.429, p<.001$), SNS 매체 사용기간($r=.730, p<.001$), SNS 중독경향성($r=.240,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평균사용시간은 SNS 매체 사용기간($r=.477, p<.001$), SNS 중독경향성($r=.465,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SNS 매체 사용기간은 SNS 중독경향성($r=.32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SNS 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r=.29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 특성 및 SNS 관련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성별, SNS 사용기간, SNS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SNS 매체사용기간, SNS 중독경향성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성별과 SNS 매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SNS 중독경향성($\beta=-.40, p<.001$)이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설명력은 37.0%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41~.82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5 ~ 2.40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성 검정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 값은 1.86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dependent variable and main variable

	1	2	3	4	5	6	7
1. Age	1						
2. Usage time of SNS	.176*	1					
3. Average usage time	.166*	.429**	1				
4. SNS media	.049	.019	.121	1			
5. Usage time of SNS media	.205**	.730**	.477**	-.001	1		
6. Addiction tendency of SNS	.107	.240**	.465**	-.012	.321**	1	
7. Personal relationship	-.097	-.082	-.008	.071	-.070	.295**	1

*p<.05, **p<.01

Table 5. Influencing factor in 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	Personal relationship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60.85	6.97		23.048	<.001		
Gender*	2.21	2.77	.05	.798	.426	.82	2.31
Usage time of SNS	-.40	1.65	-.02	-.246	.806	.43	2.31
Average usage time	2.12	1.26	.14	1.680	.095	.61	1.63
SNS media*	.30	1.32	.01	.230	.818	.94	1.05
Usage time of SNS media	2.74	1.64	.17	1.672	.096	.41	2.40
Addiction tendency of SNS	-.64	.12	-.40	-5.344	<.001	.76	1.31
Adj R ² = .370					F = 5.27		

***p<.001, *Dummy variable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SNS 중독경향성의 평균점수는 1.93점으로 약간 낮았고 연령, SNS 사용기간, SNS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SNS 매체 사용기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인관계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 Kim[21]의 청소년들의 SNS 중독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19.7%가 중독군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업 이외의 시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집에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SNS를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SNS 카카오톡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NS 활용교육에 있어서 SNS를 통한 교육과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사용특성을 분석한 결과, SNS 중독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SNS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et al.[2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ai et al[2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주로 게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관계 및 소통, 정보활용, 시간보내기 등 친구관계 맺는 것을 이유로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게임에서 경쟁이란 방식이 소셜미디어에서는 관계성, 감정의 공유,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각 성별의 기질 보다 더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NS 사용기간 및 시간은 2년 이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SNS 사용의 접근성이 많아졌으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소통수단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매체는 트위터로 Ko, Bai[24]의 결과와는 유사한 차이를 보였으며, SNS 매체 사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4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인관계로 청소년들이 관계 지향적 특성을 보이며,

학교 밖에서 SNS를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교류하는 의사소통의 통로로 이용한다는 Hwang, Park[2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NS사용이 증가 할수록 SNS에 몰입하게 되며 중독까지 이를 수 있다는 Song과 Lee[26,2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을 얻고자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교제, 친구, 취미, 여가활동, 개인적 관심사 공유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SNS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중독성이 심각해졌고, 이러한 사실이 SNS 열풍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면서 SNS 과다사용과 같은 중독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29]. 또한 청소년들이 SNS를 즐겨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며, 학습과 비학습 목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회 참여와 주요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SNS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SNS 사용기간,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사용기간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SNS 사용기간은 평균사용시간, SNS 매체 사용기간, SNS 중독경향성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평균사용시간은 SNS 매체 사용기간, SNS 중독경향성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SNS 매체 사용기간은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SNS 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SNS 중독경향성을 보일수록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적게 사용할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Hwang, Kim[30]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학업에 소홀해져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성격이나 건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대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Yang, Han[3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Ham et al.[32]의 연구에서 습관성 혹은 흥미 위주로 SNS를 사용할 경우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SNS 사용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시 또래관계에서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실제 또래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의 경우, 대인관계 욕구와 또래 문화

에 소속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욕구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대인관계 욕구가 높고 외향적이며, 기존에 많은 친구들을 유지하고 지내는 아이들은 타인과 관계 맺기를 통해 소외되지 않으려 하며 SNS와 같은 기능적 대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본인의 사회적 자본을 유지, 발달시킬 수 있다[25]. 청소년들에게 모바일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주된 목적인만큼 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모바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Kim, Cho[1]의 연구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im et al[33]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존적, 독립적 요인들이 SNS 중독경향성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인을 조정하고 통제하려 하며 자기에 대한 과한 정서표현과 관심으로 인해 사회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독립적인 대인관계 문제와 자존감이 결여된다. 또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쉽게 설득당하며 다른 사람의 욕구에 심하게 민감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는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중독경향성($\beta = -.4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u et al[3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on, Park[35]의 연구에서 온라인 활동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Hwang, Kim[30]의 연구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비이용자보다 대인관계특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이용 증가와 무선 인터넷 구축으로 인해 급속한 속도로 SNS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었고, 청소년들도 일반화된 메신저로 SNS를 이용하고 있을 뿐, 대인관계가 SNS에 반영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인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 또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적 및 통제지배 성향이 강하고 사회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타인과 대립하고, 자신이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

제하려고 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 문제와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의 불만족 및 외로움에서 오는 보상심리의 발현으로 SNS에 집착하게 되고 쉽게 중독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36].

결론적으로 SNS는 이미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SNS의 과다사용이 더 이상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SNS 사용 시간의 증가는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해가는 시대에 필수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일수록 새로움에 발빠르게 현재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SNS 사용시간의 증가는 새로운 미디어매체에 적응하고 있다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SNS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안내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구입하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활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이미 이용을 시작한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만의 활용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1]. 스마트폰이나 모든 신기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역기능은 최소화 하여야하고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방법을 극대화시키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거나 장소와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SNS의 중독예방을 위해서 SNS의 문제점과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기 위한 주위사람들 및 부모들의 상담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 모바일 사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성인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에 자주 접하는 것을 고려할 때 추후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 [1] Y. J. Kim & S. S. Cho. (2012). A Meta-Analysis of Social Network Service Research in Communications. *Informatization Policy*, 19(4), 3-26.
- [2] R. A. Davis.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DOI : 10.1016/S0747-5632(00)00041-8
- [3] J. W. Park. (2018). The Convergenc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9(4), 453-460.
DOI : 10.15207//JKCS.2018.9.4.453
- [4] MOGEF. (2017). <http://www.mogef.go.kr/>
- [5] S. H. Kim & M. Kim. (2014). SNS Characteristics Perceived by Youth and Mediation Effects of the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Degrees of Participation in Cyber Collective Intelligence Typ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363-390.
- [6] J. U. Kim & S. R. Lee. (2018).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4), 530-540.
DOI : 10.5392/JKCA.2018.18.04.530
- [7] S. H. Back & J. H.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on association of Internet Use Time with Perceived Statu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9(11), 153-159.
DOI : 10.15207//JKCS.2018.9.11.153
- [8] K. S. Kim, K. S. Shin & H. M. Lee. (2017).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7(4), 139-149.
DOI : 10.22156/CS4SMB.2017.7.4.139
- [9] M. Y. Lee & J. C. Shim. (2010). Adolescent Conflict Management Through Utilization of Interpersonal Media. *Korean Society Association & Communication Studies*, 54(3), 276-300.

- [10] M. I. Nam & O. H. Kweon. (2017). The Convergence over Effect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Bullying on Victim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Children Communication. *Convergence Society for SMB*, 7(4), 129-138.
DOI : 10.22156/CS4SMB.2017.7.4.129
- [11] S. Y. Jeong & J. N. Kim. (2014). Instru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NS Addiction Ph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 147-166.
- [12] S. Y. Park (2014).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 mediated by self-regulation*. Han Yang University, Seoul.
- [13] P. M. Valkenburg & J. Peter. (2007).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and their closeness to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267-277.
- [14] A. A. Lee & W. C. Jeong.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Maladjustment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27-50.
- [15] G. M. Lee, C. H. Kim & H. W. Park. (2017). Network Analysis of SNS-mediated Learning Community: A Facebook Group 'Magic of Flipped-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 873-884.
- [1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2012 The survey of internet addiction,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071>.
- [17] S. J. Ka, K. M. Kim & J. H. Lim. (2013). The Effect of Common Use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of the Adolescent.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11(1), 159-208.
DOI : 10.16958/dsr.2013.11.1.159
- [18] B. C. Lee & Y. H. Zhang. (2017). An Analysis on Relationship among SNS Usage Motivation as A Leisure Activity, School Life Adaptation Behavior and SNS Continuance Intention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1), 533-542.
- [19] D. J. Kuss & M. D. Griffiths.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DOI : 10.3390/ijerph8093528
- [20] Y. H. Kim, S. H. Hong, E. Y. Park, J. H. Kwon, Y. R. Cho & Y. K. Jin. (2002). 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11), 923-940.
- [21] K. T. Kim. (2017).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Smartphone Usage among Korean Adolescent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6), 115-142.
DOI : 10.17939/hushss.2017..56.006
- [22] H. B. Lee, D. W. Kim, J. Y. Choi & M. H. Shin. (2014). A Study on Teenagers' SNS Use Features and Addiction. Focus on Middle School Student of Gyeonggi-do & Gangwon-do.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6(1), 365-391.
- [23] S. R. Bai, H. J. Kim & H. C. Lee. (2013). *Survey on Internet Game Usage in Youth*. Sejong : NYPI.
- [24] E. H. Ko & S. Y. Bai. (2016). The Exploration of Factors Influencing Youth's Social Media Addiction : Focusing on SNS Usage Patterns & Parental Medi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451-472.
DOI : 10.21509/KJYS.2016.06.23.6.451
- [25] I. Y. Hwang & J. H. Park. (2016). The Substitution Effect of Teenagers' Smart Phone Use on Traditional Media Us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1(3), 119-143.
- [26] H. J. Song. (2011). A Study on SNS addiction using smart phone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1(2), 31-49.
- [27] S. H. Lee. (2013). Effect of SNS User's Emotional Perception and Flow on Word of Mouth: Focusing on the Facebook User Group.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18(2), 1-23.
- [28] Y. Choi & S. H. Park. (2011).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age on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5(2), 241-276.
- [29] N. J. Kim, S. M. Shin & G. Y. Kwon. (2013).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using motivational interviewing for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5(1), 103-117.
- [30] H. E. Hwang & H. S. Kim. (2015). Influences of Self-esteem,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 on the Tendency of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9), 233-253.
- [31] S. S. Yang & Y. J. Han. (2008). The Mediated Effects of Reality Ego-Identity and Cyber Ego-Identity upon

- Family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Adjustment a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Indulgence of Adolescents Internet Gaming.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5(3), 109-130.
- [32] S. Y. Ham, T. S. Eum & W. S. Kang. (2018). The Influence of Motivation for using SNS on School Adjustment Behavior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s of Self Efficacy. *Management Research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36(1), 23-44.
DOI : I410-ECN-0102-2018-300-004009543
- [33] B. K. Kim, Y. M. Baek & C. G. Heo. (2016). The Relation Among Attachment, Smart Phone Addiction, and SNS Addiction: The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Problem.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3(3), 483-505.
- [34] N. Yu, S. Y. Kim & S. M. Lee. (2016).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and SNS addition proneness: Mediation effects of SNS usage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 Therapist*, 8(3), 337-350.
- [35] Y. R. Son & E. A. Park. (2010).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n Internet Community Activity: Focused on Cyworld Mini-homepage.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15, 155-194.
DOI : G704-002077.2010..15.004
- [36] G. Y. Cho & Y. H. Kim. (2014).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5), 1135-1150.
DOI : 10.13000/JFMSE.2014.26.5.1138

박 공 주(Gong-Ju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통계, 건강
- E-mail : conti52@hanmail.net